

# 1주기 앞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열기 ‘고조’

유가족협 추모버스 오늘 광주 찾아  
봉곡 대표도서관 공사현장서 헌화  
광주시, 전일빌딩245서 분향소 운영  
당일 무안공항선 오전 10시 추모식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22일 광주를 찾는다.

21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 회에 따르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기억하라 12·29, 막을 수 있었다·살릴 수 있었다·밝힐 수 있다’를 주제로 추모 행사를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지난 19일부터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타고 충북 오송 참사 현장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 등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추모대회 등을 개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시민추모대회에서 성명문 ‘우리들의 약속’을 통해 “179명의 국민이 한순간에 희생된 국가적 비극으로 유가족들의 시간은 비행기가 착륙하던 9시3분에서 멈춰 있다”며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설립하고 유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과 연대의 버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 대표도서관 참사 현장을 방문해 헌화한다.

오후 2시부터는 동구 전일빌딩245 9층에서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책임져야 할 국가의 부재와 부인’을 주제로 재난피해자 원탁회

의를 연다.

원탁회의에서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과 함께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정보 부재, 행정적 소외, 장기화되는 진상규명 속 2차 피해의 구조를 짚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전일빌딩245와 무안공항에서는 누구나 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행사도 진행된다.

전일빌딩245 1층에는 ‘디지털 분향소’가 꾸려져 추모 메시지를 위한 전자침판, 종이 방명록이 구비되며 참사 사진·영상이 송출된다.

무안공항에서는 ‘순례길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모할 수 있고 공항 곳곳에 참사 당시 기록된 사진과 추모 전시품이 설치된다.

광주시도 22일 전일빌딩245 1층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는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안내 인력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추모식에 앞서 27일 오후 2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도 진행된다.

참사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정부, 국회, 유가족, 사고수습참여자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1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

추모식은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전남 전역에서 동시에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되고 오전 10시부터 희생자에 대한 헌화,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 등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태극 방곡에서 오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서형우 기자

## ‘붕괴 위험’ 지하철 2호선 인근 가구 이주 본격화

북구-LH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중흥동 18가구…區 “오늘부터 안내”

정밀안전점검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광주 북구 중흥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최근 ‘일시 대피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흥동 내 붕괴 우려 건축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서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의해 지원 대상 18가구·36명에겐 중흥동과 신안동 일대에 위치한 빌라 등의 주거 시설이 긴급 거처로 제공된다.

입주 기간은 6개월로 예정됐으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별도 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북구가 광주시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과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중흥동 소재 주택 4곳에선 담장과 외벽 등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7월21일부터 9월18일까지 광주역 뒤편과 중흥삼거리 인근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1곳이 E등급(불량), 2곳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모두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북구는 점검 결과를 전달받은 지난 10일부터 이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고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 거처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 시설이었던 탓에 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 각자의 주택에서 여태 살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관계자는 “22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며 “TF를 통해 논의 중인 하나, 광주시로부터 아직 뚜렷한 배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

신극정 5·18 부상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신극정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부상자회 회원 등 22명이 신 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총회개회금지 가처분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낸 재판자들의 주요 주장은 신 회장 등

7명의 채무자들이 임원 등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공고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임원선출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선고기간 임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 및 SNS 채팅방을 통해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연상 기자

## 철도노조 내일 총파업…호남선 차질 우려

오후 2시 광화문서 출정식

호남 조합원 40% 참여할 듯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호남선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본부에서 일제히 총파업을 실시한다.

호남본부 소속 조합원은 2천700여명으로, 이중 1천200명가량이 총파업 당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참석한다.

필수 인력 약 1천500명은 상경하지 않지만, 기관사와 승무원, 정비원 등 6개 직종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4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열차 운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파업 시에도 평소 대비 70% 수준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23-29일 운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열차에 대한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며, 이미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날 초대에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이다가 예고 당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룬 바 있다. 그러나 성과급 기준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근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윤찬웅 기자

헤어진 연인 성폭행 대학교수 ‘징역 4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와 절도 행각을 벌인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주거침입강간)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남 지역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올해 2-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